탄 원 서

무죄 판단 및 예비적 선처 요청

피고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6노2322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께.

저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다시 살펴주시고 범죄 성립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하시는 경우에도 피고인 개인의 실제 역할과 책임의 범위에 맞추어 형을 신중히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제1심은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상계엄을 전후한 정보사 요원의 준비·동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행위가 문제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이 클수록 개별 피고인의 인식과 행위를 다른 관계자의 행위와 엄격히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고인 자신의 인식과 고의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주십시오.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판단에서는 어떤 지시를 언제 전달받았는지, 당시 그 지시의 목적과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는지, 국헌문란 목적의 실행에 의식적으로 가담하였는지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지휘관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인식과 의사의 내용까지 당연히 추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증거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제 관여한 행위와 그 결과를 구분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사전 준비, 부대에 대한 지시, 현장 병력의 배치·행동, 타인의 독자적인 결정이 각각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관련 행위에 관하여 문 전 사령관이 실제로 내린 구체적 명령, 그 명령이 현장에서 이행된 내용, 다른 지휘계통과의 관계, 본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범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탄원 이유 (계속)

셋째, 직권남용 혐의도 독립된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하였는지,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가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람의 행위나 조직 전체의 결과만으로 문 전 사령관 개인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대신 판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형벌의 개별화와 균형을 헤아려 주십시오.

군 지휘체계 안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전달되는 방식과 개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실질적 재량, 구체적 실행행위의 범위와 결과, 주도성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군 복무 경력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유리한 사정 역시 누락 없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별 증거와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군의 헌법적 책무와 재판의 엄정함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 위에 놓여야 하고, 형벌은 확인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판부께서 모든 증언과 자료를 균형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개인적 사정을 세밀히 반영해 최대한 관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